

TEXT@MEDIA FEST

텍스트, 미디어와 날다

2009년 6월~12월

tom.saii.or.kr

공연

6월 성기완·구동희

7월 김경주·신재호

8월 김중혁·최수환·이세옥

9월 심보선·이태한

10월 ① 김민정·오재우

10월 ② 이원·임민욱

11월 한유주·이준

강연

9월 배식한 11월 김태환

주최: 문지문화원 사이 | 후원: 서울문화재단
장소: 문지문화원 사이, 카페 벨로주, 서교예술실험센터

텍스트 옛 미디어 페스티벌

텍스트, 미디어와 날다

2009년 6월~12월

tom.saii.or.kr

TEXT @ MEDIA FEST는 텍스트와 매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뉴미디어라는 조건이자 장에서 벌이는 21세기 텍스트 실험 축제입니다. 지난 20세기는 문학의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고 텍스트의 외연을 넓히려는 아방가르드적 실험들과 텍스트의 구조, 해석, 개념에 대해 언어철학자들이 일구어낸 혁신적인 연구들로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술현장과 학계를 가리지 않고 종이 위에서 펼쳐진 이러한 텍스트 실험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TEXT @ MEDIA FEST는 일련의 공연과 강연을 통해 기존 문학 영역을 재범주화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읽고 쓰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작가와 관객이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2009년 6월 20일, 성기완과 구동희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총 7명의 문학작가들과 8명의 미디어 작가들이 매 달 문지문화원 사이, 카페 벨로주, 서교예술실험센터 등 흥대 전역에서 관객을 맞이합니다.

하이퍼텍스트

강연자: 배식한 (철학자)

2009 9.19 (토), 문지문화원 사이

배식한: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동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마쳤다.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지식의 통섭>(공저), <반실재론을 넘어서서> 등의 저서와 <진리, 진실, 참>, <양자역학과 실재론>, <가설연역법을 활용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 등의 논문이 있다. 한국어 진리, 진실, 참의 의미 차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언어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과 인간 사유 간의 관계 역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주제이다.

미디어와 텍스트 실험

강연자: 김태환 (문학평론가)

2009 11월 말, 문지문화원 사이

김태환: 서울대학교 독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독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대학교에서 비교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문학과사회> 편집 동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푸른 잠미를 찾아서>, <문학의 질서>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비트겐슈타인은 왜>, <이데올로기와 이론> 등이 있다.

주최 >i<문지문화원 사이 후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4-24 2층 | 문의: 02-323-4207

tom.saii.or.kr

TEXT @ MEDIA FEST

텍스트, 미디어와 날다 2009년 6월~12월

공연

파라랭귀지: 페이션트 콘트롤 Paralanguage: Patient Control

성기완, 구동희

미디어가 신체를 억압하는 양상은 미디어가 텍스트를 제어, 조작하여 그에 기반한 소통을 통제하는 과정과 닮아있다. 작가들은 몸, 그리고 텍스트의 몸이 미디어의 통로를 거치면서 그 정체성이 지워지고, 잘라지고, 재조합되는 양상을 밝혀내는 복합적인 쇼를 선사한다.

2009 6. 20 (토) 저녁 8시, 문지문화원 사이

성기완: 시인, 음악가, 잡글 라이터. 시집으로 <소림강다 오십니까?>, <우리 이야기>, <당신의 텍스트>가 있으며 솔로앨범 <나무가 되는 법>, <당신의 노래>와 밴드 3호선버터플라이의 멤버로 3장의 정규 앨범을 냈다. <라디오 데이즈> 등의 영화에서 음악감독 일을 맡았으며 2005년부터 4년 동안 EBS FM <세계음악기행>을 진행했다.

구동희: 작가. 아라리오 서울에서 첫번째 개인전 <Disturbance>를,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두번째 개인전 <합성적 체험>을 가졌다. 페스티벌 불, 광주 비엔날레, 난징 트리엔날레,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전 등을 통해 작품이 소개된 바 있다.

도시설화 Urban Myth

김경주, 신재호

현대 사회의 매체 의존성은 이른바 도시설화(Urban Myth)로 일컬어지는 독특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뉴미디어의 확산성에 주목하는 작가들은 모바일 공간, 네트워크화된 공간 안에서 소문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을 문학 창작 방식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2009 7. 18 (토) 저녁 8시, 서교예술실험센터

김경주: 시인. 200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로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기담>이 있다.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에 작품을 올리며 극작가로도 활동중이며 무경계 문화평 프 연구소 '츄리닝바람'을 운영하며 다양한 인문문화작업을 하고 있다.

신재호: 미디어아티스트, 디지털회화, 애니메이션, 북아트, 실링영상, 독립다큐멘터리, 영상설치, 연구 및 저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2005년 서울국제도서전, 2008년 서울 시립미술관 주최 SeMA 2008에 참여했다.

자동기계들의 밤, 쌍쌍-바에서 불려요

김중혁, 최수환, 이세옥

작가들은 퍼포머, 영상, 사운드 등이 일련의 규칙하에 운용되는 하나의 거대한 자동기계(automata)를 설계하고 제어하면서 일련의 텍스트를 발생시킨다. 이로써 규칙들이 자동발생시킨 텍스트들과 규칙으로서의 텍스트가 사실과 날실이 되어 하나의 총체극을 직조해 간다.

2009 8. 26 (수) 저녁 8시, 카페 벨로주

김중혁: 소설가. 2000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뽕갠뉴스>, <악기들의 도서관>과 흥대 희망시장의 아티스트를 인터뷰한 <놀이터 옆 작업실>등의 책을 펴냈다.

최수환: 미디어아티스트, 포스트락/전자음악 밴드 Yellow Kitchen의 멤버였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AT-LAB 연구원이다. amoevaa라는 이름으로 가끔 작품 제작을 하고 있다.

이세옥: 작가. <미미미, 미미미>, <P..armacon> 등 다수의 영상작업이 서울뉴미디어페스티벌, 시네마디지탈서울,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등에서 상영 및 전시되었다. 상상마당 사전제작지원(2006), 서울뉴미디어페스티벌 미디어작가상(2007)을 받았다.

텍스트 해상도 Text Resolution

심보선, 이태한

시를 데이터의 집합과 연결하면서 시에 내재하는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한 권의 시집은 작가들이 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해체, 분류, 재조립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의미, 그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2009 9.19 (토) 저녁 8시, 문지문화원 사이

심보선: 시인, 사회학자.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풍경>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는 <슬픔이 없는 심오초>가 있다. '21세기 전망'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태한: 미디어아티스트. 2004년 개인전 <오해는 곧 나의 목적> 이후 다수의 기획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2007-2009까지 문지문화원 인문예술교육팀장으로 근무했다.

어른어린이의 반죽놀이

김민정, 오재우

"오늘에 준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을 거리 밖으로 내버려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매체들, 다양한 예술장르 속 명명들, 그 말말들을 거리 위에서 최초로 구경하는 자가 되어 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제멋대로 놀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가늠이안 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희가 없는 곳엔 놀러갈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2009 10.17 (토) 저녁 8시, 문지문화원 사이

김민정: 시인.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검은 나나의 꿈> 외 9편의 시로 등단하였다. 시집으로는 <날은 고슴도치 아가씨>가 있으며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오재우: 작가. <서교 6회 향방의 전쟁>(갤러리 상상마당), Sema2008(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올 해 8월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시-詩/時/市/是-를 접다, 시(是/市/時/詩)를 펼치다

이원, 임민욱

접는 페이지에 써지는 '시'는 감춰지는 동시에 보여지는 언어다. 미디어는 같은 공간에서 '시'를 나타나게도 하고 숨어게도 한다. '접다'라는 동사적 개념을 둘러싸고 미디어는 말(詩)에, 시간(時)에, 장소(市)에, 이치(是)에 개입한다.

2009 10월 말, 연희문학창작촌

이원: 시인. 1992년 <세계의 문학>으로 데뷔하였으며 시집으로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아후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가 있다. 현대시학 작품상, 현대시 작품상을 수상했다.

임민욱: 작가. 2003년 Pidgin Collective를 설립하고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와의 긴밀한 협업 등을 이끌어왔다. 인사미술공간에서 <주관적 이웃집>(2000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점프 컷>(2008년)등 네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이스탄불 비엔날레(2007), <Your Bright Future>(2009) 등의 한국과 해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 광주비엔날레 재단상과 2007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을 수상했다.

도축된 텍스트

한유주, 이준

음식과 텍스트를 은유적으로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해 '먹을 수 있는 텍스트'를 선보인다. 읽고 이해하는 텍스트에서 먹고 맛보는 텍스트로의 경험을 제공하고 감각적 전이-교차-합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얼리티를 시도한다.

2009 11.18 (수), 저녁 8시, 카페 벨로주

한유주: 소설가. 2003년 <문학과 사회>로 문단에 나왔으며 소설집으로 <달로>와 <얼음의 책>이 있다.

이준: 미디어아티스트. 2006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 <ArtSpectrum2006>, 2008년 제5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올 해 벨파르트에서 열리는ISEA2009에 참여한다.

일반공모 (2009. 6.1~10.31)

문지문화원 사이에서는 Text@Media Fest의 일환으로 종이인쇄 방식에서 구현 혹은 발견하지 못했던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와 형태를 보여주어 텍스트와 미디어의 변화된 관계를 제시하는 작품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